

내달부터 소규모사업장도 산재 적용

정부, 19만명 노동자 추가 산재보험 혜택 예상 영세사업주 부담 고려 징수액 보험료 5배 못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

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상시노동자 0.4명)은 산재보험

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약 15만2000명 등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확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시는 26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정신 '꽃심' 과 인문정신 문화 전파를 위해 개최한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꽃심' · 전주의 인문정신 문화 전파

전주시,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대회 시상식 성료 총 132편의 독후감 중 우수작품 36편 상장·상금 전달

전주시는 26일 시청 강당에서 1300년의 세월을 지나 전주인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전주정신 '꽃심' 과 인문정신 문화 전파를 위해 개최한 제2회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0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총 132편의 독후감 중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36편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이번 대회의 초 등부부터 일반부까지 4개 부문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과 시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꽃심 전주' 독후감 대회는 전주시민에게는 내 고장 전주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타

지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꼭 방문하고 싶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평이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꽃심 전주' 독후감대회가 전주를 알리는 창신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전주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에서도 전주와 전주정신 꽃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훌륭한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꽃심 전주' 전국 독후감 대회는 매년 개최될 예정으로, 전주정신을 소개한 '꽃심 전주' 스토리북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송호철 기자

원광대, 농촌 봉사활동 내달 1일까지 무주서 진행

원광대학교가 하계 농촌 봉사활동을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무주군 일대에서 진행한다.

원광대 봉사단은 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조를 이뤄 3개면 13개 마을에서 농장 및 과수원, 논·밭일 등 일손 돕기에 들어갔으며, 하우스 작업과 배수로 정비, 마을 청소 등 노력 봉사도 펼친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하계 농촌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등 건전한 인성 형성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으며, 봉사활동 일정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교과목 2학점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농촌현장을 경험하고, 꿈을 키우는데 중



원광대학교가 하계 농촌 봉사활동을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무주군 일대에서 진행한다.

점을 두었으며,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미숙함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있다.

발대식 직후 봉사활동 지역으로 떠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지도교수 등 교직원들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원활하게 봉사활동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2020년부터 전국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특수학교 164개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에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과목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 교사로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하반기 산발한 진로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내년 1년 동안 570시간의 연수를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해당 교사들을 전국 특수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 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대 LINC+사업단 벤처기업협회와 손잡다

전북에서 세계로... 글로벌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발대식·초청강연회 열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 전주대(총장 이호인) LINC+육성 사업단은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와 공동으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을 결성하고 26일 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발대식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을 위한 특별초청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에 결성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은 잠재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우수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결성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대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활로개척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은 산업특화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융합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분야별 기업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더불어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도서관, 제주헌책도서관과 '맞손'

독서문화 확산·진흥사업 등 연계 추진

전북대학교 도서관(관장 박승제 교수)이 제주헌책도서관(관장 강우현)과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탐라문화공원에서 '제주헌책페어'를 열고 있는 제주헌책도서관은 이 행사에 전북대 도서관의 참여를 요청해 온 것이 첫 인연이었다.

전북대는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제주헌책페어에 참여하기로 했고, 등록제의 도서 등 2천여 책을 기증하는 등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공식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진흥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고, 상호 간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박승제 도서관장은 "25년 만에 찾아온 '책의 해'를 맞아 헌책을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는 제주헌책도서관과 함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게 돼 기쁘다"며 "책을 통해 하나 되는 양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